

학비노조 또 파업 예고... 학생 급식 차질 우려

광주·전남 8천여명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 25일 상경 26일부터 시·도교육청 출근 투쟁... 교육청 대책 부심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원·영양사·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25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급식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광주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다.

광주지부는 25일 상경투쟁을 한 뒤 26일엔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출근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은 ▲장기근무 가산금의 급속수당 전환 ▲연간 상승폭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재정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급속수당 인상을 반영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은 급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3시간(주 6일 기준)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걸었다.

광주지부 측은 교육당국의 안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기본급은 대략 160만1090원선으로, 현행 243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시간당 6588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18원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정안인 209시간으로 계산하

면 시급은 76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0원 가량 많아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의미가 없어진다.

광주지부 등은 교육당국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못박고 있다.

광주지부에는 광주 317개 초·중·고교

와 단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급식조리원(961명)·조리사(203명)·영양사(114명)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 730개 초·중·고교 및 23개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급식조리원(530명)·조리사(2000명)·영양사(240명) 등이 종사 중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원으로, 이들이 파업에 대해 참여할 경우 파업 기간 내 급식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사 실무사 220여명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학

교 아동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고려해 빵·우유 급식,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최저임금무력화 시도(임금산정시간 개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장애인 생활체육 한마당 19일 광주시 서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광주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단체체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초·중·고 컴퓨터 5대중 1대 ‘노후’ ‘가축분뇨 처리 단속’ 손 놓은 지방환경청

사용 연한 초과... 내년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대비 역부족

광주지역 초·중·고교에서 보유한 컴퓨터 5대 중 1대는 내구연한(6년)을 초과한 낡은 컴퓨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전국의 각 학교에 소프트웨어(SW) 교육이 도입되지만 교육을 대비하기에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316곳이 보유한 컴퓨터 중 구입한 지 6년이 넘는 컴퓨터 비율이 20.0%에 달했다.

전국 학교(1만1528개교)의 보유 컴퓨터의 수량에 대비해 구입시기가 6년을 초과한 컴퓨터의 비율은 평균 17%로, 광주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는 울산(21.0%)·전북(20.7%)에 이어 3위다. 구입 후 3년 이내의 컴퓨터 비율은 37.6%에 불과했다.

반면 세종은 2.3%로 가장 낮았고 전남(10.0%)과 제주(11.7%), 충남(12.0%) 등도 비교적 낮았다.

조달청이 정한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 40% 이상이 사실상 교체 대상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구입 시점이 6년이 넘는 컴퓨터 외에도 5~6년 된 컴퓨터가 11.3%, 4~5년 이내가 12.2%에 달한다는 것이다. 4~5년 된 컴퓨터까지 합산하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세종과 제주, 전남을 제외하고 14개 교육청 관내 전체 컴퓨터의 33.3%가 교체 대상으로 파악됐다. /이종형기자 golee@

지자체와 함께 한 단속률 1% 불과... 자체 단속은 全無

전국에 있는 지방환경청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입수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7만3903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지방환경청이 지자체와 함께 한 단속률은 평균 1%에 불과했다.

환경청 자체 단속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지자체와 합동단속이 이뤄진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단속 결과 적발률은 10곳 중 2곳에 해당하는 18%로, 현장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가 상당했다.

이처럼 위반 행위는 적지 않은데도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분야 환경범죄 현황을 보면 2012년 8.8%, 2013년 7.2%, 2014년 3.0%, 2015년 1.6%, 지난해 0.7%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범칙율이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탓이라고 서 의원은 분석했다.

서 의원은 “가축분뇨법상 규정된 환경부 사무 집행내용도 전무했다”며 “가축분뇨 오염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있는 환경청이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3 해질 06:48
해짐 17:52 달짐 18:26

나들이 가기 좋은 날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2/23	보성	맑음	10/21
목포	맑음	13/22	순천	맑음	12/23
여수	맑음	15/21	영광	맑음	11/22
나주	맑음	10/23	진도	맑음	13/22
완도	맑음	14/23	진주	맑음	11/23
구례	맑음	9/22	군산	맑음	12/22
강진	맑음	11/23	남원	맑음	10/22
해남	맑음	10/23	속산도	맑음	15/19
장성	맑음	10/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5~2.5	북동~동 2.0~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2.0~3.0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파부질한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33	02:20
	19:54	14:44
여수	02:56	09:23
	15:21	21:29

◇주간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	☀	☀	☀	☀	☀	☀
12/24	12/22	12/19	9/18	8/19	9/20	9/20

“北에 있는 아내 보고 싶어 도주”

‘검거’ 나주 정신병원 탈주 살인미수 전과자 주장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나주정신병원 탈주 살인미수 전과자가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유태준(48)씨를 전날 6시3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검거했다. 유씨의 은신처에서는 구멍조끼와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가 발견됐다.

유씨는 경찰과 교정당국 조사에서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우발적으로 달아났다”며 “북으로 보내달라.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인 그는 “경기

도와 인천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돈을 벌었다. 북에 가려고 알아는 봤는데 어렵고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서해를 통해 북에 가려고 월미도 등을 답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휴대전화로 임박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보안법위반(탈출예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그는 2004년 이북동생을 흥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생활해왔다. 지난 8월 1일 작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병원을 탈출했다.

/나주=서충원기자 scy@kwangju.co.kr

‘그림 대작 유죄’ 조영남 항소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19일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그림 구매자들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회화에서는 소재를 제공한 작가가 창작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즈넉한 여유가 있는 명품 한옥으로 떠나는 '가을 힐링 여행'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원예촌 by 캔싱턴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남원예촌 by 캔싱턴은 이랜드 호텔레저 사업부와 남원시가 함께 선보인 명품 한옥으로, 화학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문화재 명장이 공정마다 혼을 담아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기품 있는 한옥의 멋이 느껴집니다. 코끝에 닿는 나무, 흙냄새와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 창가에 스미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머물 자체가 휴식이 되는 남원예촌에서 비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원예촌 by 캔싱턴 남원시